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 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 주제: 제목 :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경: 사도행전 4장1-12절

1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2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3 그들을 잡으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4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오천이나 되었더라

5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6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종이 다 참여하여

7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8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9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1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행4:1-12)

###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름’의 용도. 1. 호칭 2. 이름의 소유자를 대신함.(지위, 권리, 의무, 사명, 소유의 표시(인장) 또는 그 자신을 표현함) \* 단 그가 살아있을 경우에만 그렇게 함. 그가 죽었으면 그 지위나 권리나 의무만 유언에 따라서 나누는데

사용됨.

만약 이름이 두 개 이상이면? 인격이 둘 이상으로 분열되는가? 아니다. 이름이 두 개 이상이 된다는 것은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사용하겠다는 의도일 뿐, 인격체가 둘 이상이 되었다는 것이 아님. (대단히 단순한 의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아님. 그 이름은 현재까지도 아무도 모름.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물었을 때도 ‘나는 곧 나다’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곧 나다’라는 문장으로 ‘야호웨’라는 단어를 만들었고, 그것을 영어권에서 ‘Jehovah’로(저:혀우바)로 번역한 것을 한글로 ‘여호와’로 번역함.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야호웨’로 발음하지 않고 ‘아도나이(주님:Lord God)’로 발음한다.

예수님의 이름;예수님의 이름도 진짜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다만 사람의 몸을 입었으니 사람들에 의해서 알려지게 될 이름이 필요하게 되었기에 ‘예수’라 하라고 가브리엘이 전함.

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1:21)

그런데 곧 바로 다른 이름을 거론하는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

23 보라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1:23)

이 이름은 이사야 7:14절에 계시된 이름이다.

14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7:14)

즉, 23절에서 사용된 ‘이름’의 의미는 ‘지위와 권리와 사명’을 표현한다. 즉, 이름이란 이름의 주인을 잘 표현하고 그 사명을 선포하는데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원래 이름을 알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정의의 영, 지혜의 영’으로 알려졌지 그 이름을 알지 못한다.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28:19)

여기에서의 이름의 용도는 '지위와 권리'를 뜻하는 '인장'의 사용이다. 성령에게도 이름이 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다. 성령의 '지위와 권리'를 사용해서 세례를 베풀라는 뜻이다.

### \*예수라는 이름의 용도

'예수'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또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이름 '예수아' 혹은 '여호수아'의 헬라식 명칭이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엔 매우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확히 밝혀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족보나 거주지 등을 첨가하여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긴 칭호를 사용하기도 했다(요1:45). 비록 '예수'라는 이름이 당시 너무나 흔한 이름이었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만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심으로써 그 이름의 충분한 의미를 실현하였다.

'예수'라는 이름은 요셉과 마리아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세상 구주를 위해 이미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되어진 것이었으며, 그 의미는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었다. 이 이름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기억케 하는 가장 적절한 것이었으며, 예수께서는 자기 이름의 뜻을 회상하면서 이 세상을 위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기억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의 이름' 자체가 바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요, 신앙이었다.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 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이심을 선포하는 셈이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금지 되었다(출 20:7). 하나님의 이름이나, 예수님의 이름이나, 성령의 이름으로 장난치는 것은 신격모독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다.

장길자씨가 이끄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는 이단으로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거짓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속지 말아야 한다. 이들은 하나님 어머니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성령님의 이름을 아느냐고 접근하기도 한다. 애 딸린 아줌마가 주 포교 대상. 주로 교회 교인들이 포섭대상이니 주의해야 한다.(어머니회, 설문조사 위장, 안상홍이나 장길자라는 이름은 절대 거론하지 않는다.)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사41:1-4; 후에 천년왕국을 다스릴 재림주 예수님께 대한 예언이다.

1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2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  
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 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  
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개 같게 하매

3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 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4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  
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오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なり라  
(사41:1-4)

\* 안상홍은?

안상홍 85년 67세에 심장마비로 사망

81년 63세에 장길자와 세 번째 결혼, 결혼 당시 장길자 39세 (그녀는 하나님어머니가 된다.)

예수는 유월절을 성만찬으로 변역했다고 주장함. 그래서 유월절을 회복시키겠다고 함.

안식교인이었으며, 스스로를 재림주라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이단을 만듬.

2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렛소  
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이 그 거문고를 타는

것 같더라 (계14:2)

많은 물 소리 : 홍

거문고 타는 것 같다: 상 (안 홍상?)

계3:12 예수님이 새이름 , 2:17흰돌에 새이름 이 안상홍이라고 주장.

버가모교회를 향한 말씀 중.

17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계2:17)

흰돌은 승리자에게 기념으로 주는 돌. 신앙적 승리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뜻으로 사용하심.

새이름;감추었던 만나; 예수님의 이름을 뜻함.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름의 주인은 나사렛 예수이지 다른 사람이 아니다.

재림 예수님은 예수님의 직접 오시지, 다른 사람을 보내지 않으신다.

12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계3:12)

기둥이 되게 하신다;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뜻. 영광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즉,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신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날인하신다는 뜻.

새 예루살렘의 이름. ;지명을 밝히는 팻말로 사용된다는 뜻.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감추었던 이름. 역시 성령의 이름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을 그곳에 새겨 넣으신다는 뜻.

12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행4:1-12)

사람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예수

구약시대: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신약시대:예수

성령시대:확인되지 않음

안상홍:처들이 확인해 줌. (그 처들이 중인이 되려면 세례요한과 같은 공인됨이 필요할 것이다. 적어도 그도 없이 둘이 짜고 쳤으며, 후에 세 번째 아내로 변개되었음.)

## <찬양예배>

주제: 제목: 한때와 두때와 반때 II 말씀: 다니엘 2장

1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이 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2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 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3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4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5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6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7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8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9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10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11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12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13 왕의 명령이 내리매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14 그 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15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16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라

17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19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20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21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22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23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며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24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 드리리라 하니

25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라

26 왕이 대답하여 벨트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27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28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뭘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리 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29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30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 주려 하심이니이다

31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32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33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34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35 그 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의 거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36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37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38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 머리니이다

39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40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

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못 나라를 부서뜨리고 짹을 것이며

41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다

42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다

43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44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살 것이다

45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46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47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재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48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49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단2:1-49)

## ● 작은 뿔의 신원을 밝히는 여덟 가지 특징들 ●

1. 그것은 ‘넷째 짐승’에게서 나왔다(24절).

2. 그것은 ‘열 뿐’이 나타난 이후에 생겼다(24절).
3. 그것은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다(24절).
4. 그것은 ‘세 왕’을 복종시킨다(24절).
5. 그것은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 한다(25절).
6. 그것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한다(25절).
7. 그것은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25절).
8. 그것은 ‘한 때, 두 때, 반 때’의 기간에 특별한 권세를 누린다(25절).

“정치적 로마의 폐허로부터 로마 교회의 형태로 거대한 도덕적 왕국이 일어났다.”(A.C. Flick, *The rise of the medieval church*, 1900, p.15).

“교황은 그들의 권력과 위신과 칭호들을 이교로부터 상속받음으로써 공석이 된 로마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콘스탄틴 황제는 이 모든 것을 로마 주교에 넘겨주고 갔다… 교황권은 몰락한 로마 제국의 무덤 위에 왕관을 쓰고 앉아 있는 로마의 유령이다.”(Stanley's History, p.40).

“로마 교회는 이러한 방법으로 슬며시 로마의 세계적인 제국의 자리로 밀고 들어왔는데, 실제로 로마 교회는 로마 제국의 계승인 것으로, 로마 제국은 망한 것이 아니라 단지 모양을 바꾼 것이다… 교황권은 정치적 피조물로서 세계적인 제국처럼 위풍이 당당한데, 이는 그것이 로마 제국의 계속이기 때문이다. 그 자신을 ‘왕’ 혹은 ‘폰티펙스 막시무스’(주고대 이교의 대제사장의 칭호)라고 자칭하는 교황은 시저의 후계자이다.”(Adolf Harnack, *What is Christianity?* New York: G.P.Putnam's sons, 1903, pp.263, 270).

로마 카톨릭이 탄생하기까지의 연대기

콘스탄틴황제(306–336)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함

콘스탄티노플 천도 330

로마에는 교회가 남아있게 됨.

375년 게르만민족의 대이동 476년 헤룰리족에게 서로마 멸망

① 헤룰리족이 493년에 멸망

동로마의 제노황제는 서로마를 구해야 한다는 명목아래 전쟁하여 승리함.

② 북아프리카 반달족이 534년에 멸망

③ 이탈리아 동고트족이 538년에 멸절하였다

A.D. 538년부터 로마교권은 비로소 세계적 속권을 수립하게 된다.

###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황권의 말들

① 훼라리스(Ferraris) 카톨릭 교회 사전에 이르기를

“교황은 대단히 존엄하시고 지극히 높임을 받으셨으므로(so great dignity and so exalted) 그는 단순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며, 또 하나님의 대리자(the Vicar of God)이시다.”(“pope”, Ferraris' Eccl. Dictionary).

② 뉴욕 교리 문답(New York Catechism)에 이르기를

“교황은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에 있다... 신적 권능을 가진 교황은 신앙과 도덕과 모든 목자와 양무리들에 있어서도 지고하며 충만한 권능이 있다.

그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모든 교회의 머리요, 모든 기독교도들의 아버지요, 교사이다. 그는 무오한 통치자요, 교회의 기초자이며, 공의회의 심판권을 지닌 권위자이다. 또 진리에 있어 우주적 통치자이며, 세계의 중재자요, 하늘과 땅의 최고의 사법권을 가진 바로 땅에 있는 하나님 자신이다.”

### \* 사죄권을 주장하는 로마 교회의 말

“하나님 자신도 그분의 사제들의 심판 및 그들의 면죄를 거절하느냐 허락하느냐에 따라서 죄를 용서하시느냐 안 하시느냐를 결정해야 할 의무가 있으시다... 사제들의 심판이 우선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동의하신다.”(사제의 존엄과 의무, 12권 2쪽)

현대 신학계의 대표적 학자 중 한 사람인 팔мер 로벗슨(O. Palmer Robertson) 박사는 여기서 바울이 언급한 ‘불법의 사람’이 로마교황으로서 다니엘 7장의 ‘작은 뿔’과 일치한다고 설명한다:

그가 앉아 있는 위치에 주목하라. “그는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있다.” 이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니다.